

여권 밀매 9명 적발

전남경찰, 허위 분실신고...수사 확대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3일 해외에서 국내 여권을 판매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정모(45·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를 구속하고 자신들의 여권을 정씨에게 판매한 원모(4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흥풍에 채류 중인 총책 김모(45)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3월께 총책 김씨의 지시에 따라 해외여행 경험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원씨 등 내국인 7명에게 "여권을 만들어 팔면 해외 무료여행과 여권 1매당 100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속여 이들을 말레이시아로 출국시킨 뒤 여권 밀매를 알선한 혐의다.

밀매자 원씨 등은 알선책 정씨의 지시에 따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총책 김씨에게 여권을 밀매한 후 '여행 중 분실했다'고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뒤 여행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여권 밀매조직이 2003년 4월 흥풍에서 9명, 2004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7명 등 모두 16명으로부터 여권을 밀매한 사실을 밝혀내고 태국 등 동남아에서도 여권 밀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중국 조선팔 등이 한국으로의 입국을 위해 여권 밀매 브로커 등을 통해 대한민국 여권을 구입·위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고가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학 입학 미끼 수천만원 채권

前 대학 야구부 감독 구속

광주 서부경찰은 23일 서울 H대학 야구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학부모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광주 S대학 전 야구부 감독 김모(35·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남모(51·서울시 용산구)씨를 만나 "내가 서울 H대 출신인데 서울 S고교 야구선수인 아이를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3천9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H대학 야구부 관계자와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J고 야구부 출신인 김씨는 프로야구단에서 선수로 활동했으며, 전남 H고와 광주 S대 감독을 역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씨에게 받은 돈은 식비나 생활비 등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서울 H대학 관계자는 학창 시절 같은 팀에서 함께 활동한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남씨는 올해 자신의 아들이 대학 진학에 실패하자 최근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아침 법원청사에 은은한 멜로디

판사 DJ "음악 나갑니다"

■ 광주지법 김영기 판사 '화제'



매주 화요일 아침 구내방송을 통해 법원 직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광주지법 제2민사부 김영기 판사. 뒤편은 기술감독을 맡고 있는 박현옥씨. /최현백기자 choi@kwangju.co.kr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face..."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 '이글스' (Eagles)의 '호텔 캘리포니아'(Hotel California)가 광주지법 청사에 울렸다. 이어 잔잔한 목소리의 DJ(Disk Jockey) 멘트가 이어졌다.

"광주지법 직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전국이 비 피해로 몸살을 앓았습니까. 직원 여러분은 별일 없었지요?"

매주 화요일 신청곡·사연 소개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 확 바껴

매주 화요일이면 광주지방법원 직원들은 평소와 달리 출근길을 서두른다. 발걸음도 가볍고 활기차다. 딱딱하고 무거운 법원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DJ의 아침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장흥출신으로 광주지법 제2민사부에 첫 배속된 김영기(30) 판사. 지난 4월18일부터 시작된 김 판사의 아침방송은 불과 3개월 만에 법원 직원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직원들의 칭찬릴레이·생일 축하·신청곡 및 신청 사연·공지사항 등의 특별한 코너를 만들어 한 주간의 법원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아침 방송은 매주 20여 통 이상의 신청곡과 사연이 물리고 있다. 방송을 통해 알리고 싶은 직원들의 정

한 릴레이도 이어져 지금까지 9명이 소개됐다. 친절한 직원들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쥐어 줘야 하며 일부 부장판사들이 도서상품권을, 전 광주지법원장이었던 전수안 대법관이 금일봉으로 10만원을 내놓는 등 법관들의 참여율도 높다.

반듯한 방송실 하나 없이 광고구법 1층 방재센터 사무실 한쪽의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열악한 방송 환경이지만, 직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김 판사의 숨은 노력이 컸다. 매주 1회 30분간의 아침 방송을 위해 김 판사는 재판업무 이후에 자신의 시간을 쪼개

3~4시간 가량 방송 기획에서부터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직접 대본을 짜고 있다. 음악 선곡은 인터넷 MP3 사이트 '멜론'(www.melon.com)에서 다운받아 하루 10여곡씩 사용하고 있다.

김 판사는 "군 복무시절 취침방송 진행 경험을 살려 방송을 하게 됐다"면서 "화요일 아침 방송으로 일주일 내내 직원들이 행복해 하고, 이런 행복이 민원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 됐으면 한다"고 웃었다.

방송 기술감독을 맡고 있는 광주지법 민사집행과 박현옥(여·45)씨는 "김 판사의 방송에 매료된 직원들이 매주 1회에서 2회로 늘려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서 '음주 트럭' 노점 덮쳐 2명 숨지고 14명 부상

화물 트럭이 재래시장 인근 노점을 덮쳐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지난 22일 오전 8시15분께 목포시 산정동 구 청호시장 거리에서 김모(61)씨가 운전하던 1t 화물 트럭이 시장 안으로 20여m 가량 돌진, 물건을 사고 있던 김정숙(여·53·목포시 용해동)씨와 이복남(여·63·목포시 산정동)씨가 숨졌다.

또 양재석(51·광주시 동구)씨와 김양심(여·79·목포시 산정1동)씨 등 14명이 크게 다쳐 목포 한국병원과 기동병원, 중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양씨와 김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폐를 크게 다친 양씨는 전대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운전자 김씨는 현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40여분만에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혈중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알코올농도 수치가 0.0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김씨는 경찰에서 "기어를 D 위치에 놓은 순간 차가 매우 격하게 출발했다"며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 차량이 당시 5m 가량을 추진한 뒤 시장 내로 60여m를 돌진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운전자 김씨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23일 사고차량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서울 고시원 방화 노래방 업주 영장

잠실 고시원 화재참사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은 23일 고시원 건물에 불을 질러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전자 김씨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23일 사고차량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3층 고시원에 사는 여자와 사귀어왔는데 최근 잘 만나주지 않는데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아 화병에 불을 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연합뉴스



연예24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필지 3534㎡ 문의 (062)366-4220

승용차에서 40대 번사

23일 새벽 5시35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K목재 인근 도로에서 송모(48)씨가 승용차 운전석에 숨진 채 있었던 것을 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노숙자들, 미회원 사칭 회식비 뜯어

상대팔

노숙자들이 환경미화원을 사칭하면서 상인들을 상대로 회식비 등을 뜯어오다 경찰에 들켰다. ○광주 남부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모 마트에 들어가 "구청 환경미화원인데 회식을 하려고 하니 찬조금을 달라"며 5천원을 받은 등 최근 이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2만원을 받아 채권 혐의(사기)로 박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 ○광주공원 주변 노숙자인 박씨는 구청 환경미화원처럼 보이게 위해 동료 노숙자 3명과 함께 차량 등록이 말소된 구형 봉고차로 이동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최신 출시된 SONY의 명품들... 2006 소니 만다림 여름모상품제. Includes images of Sony products like cameras and speakers.

홍스제이스... 미타리가구 전문점. Includes an image of a person and text about a store or service.